

AIDS 감염 충격, 대화로 줄여라!

강태수 (기명·감염인)

감염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감염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통이나 편견들을 이미 같은 경험을 한 선배 감염인들이 연재하는 코너로 많은 감염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중기획으로 마련하였다.

'생로병사(生老病死)'

사람은 태어나 늙게 마련이고 또한 병들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란 뜻일 게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늙어감을 받기지 않으며 아물러 원치 않는 질병과 병마에 시달리는 것 또한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유독 에이즈는 97~8%가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다는 사회적 질병인 탓에 똑같은 성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감염되지 않는 경우는 재수가 좋은 것이며 정숙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감염된 경우는 재수가 없는 사람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치부되어 많은 감염인들에게 육체적 고통과 아픔을 넘어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가족의 냉대가 가장 힘들어

2001년 봄 어느 날, 21세기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세계가 떠들썩하게 외치던 밀레니엄 시대의 도래를 자축하는 함성이 요란하던 그 시절, 나는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원인모를 두 번의 실신을 경험하게 되었다. 구급차에 실려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후 2주간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엄청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에이즈 양성반응자' 라는 사실이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를 극

복하는 단계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고 한다. 현실을 부정하는 '부정의 단계', 고민하고 갈등하는 '방황의 단계',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싸워 이겨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타협의 단계'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각 사람의 의지와 정신건강상태, 성격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으며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나 역시 이러한 고통의 단계를 경험했으며,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후에 뒤바뀌어진 생활의 변화를 감당하고 극복하기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으로부터의 냉대와 소외였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가족으로부터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 그 자체였다. 질병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 따가운 주위의 시선,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고 살아갈 자신이 솔직히 나에게 는 없었다.

"이승에서 굴러도 저승보다 낫다"

주치의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에이즈란 질병은 감염되면 바로 죽거나 혹은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를 도와주는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기에 본인만 투약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수명만



대인기피증, 공포증, 우울증으로 고민하던 나는 지난 날을 회고하며 한자한자 일기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 같은 입장의 감염인을 만나 많은 대화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삶에 자신과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인간의 탄생은 우연일 수 있겠으나 죽음은 필연이기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죽음 앞에서 분명 무엇인가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착실히 약을 먹기 시작했고 2년여가 지난 지금 95% 이상 호전된 상황에서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 보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감염인은 혼자가 아니다

대인기피증, 공포증, 우울증으로 고민하던 나는 컴퓨터를 한 대 구입했다.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한자 한자 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같은 입장의 감염인들과의 접촉, 관련 사이트를 서핑하며 고민을 토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삶에 대한 자신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혼자만의 고통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감염인들이 나와 같은 입장에서 고민하며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이 동질감을 갖게 하여 다소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편견과 차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몸부림치는 현실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사회봉사 단체를 접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후 전화상담, 동료상담, 출장상담, 예방교육 등을 하게 되었다.

현재 나는 감염인들의 복지와 인권회복을 위한 봉사는 물론 한 번의 실수나 외도로 감염을 고민하는 많은 공포증 환자, 건강염려증 환자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현실을 인식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편견과 차별극복에 대한 사회인식의 보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주어진 삶에서 나머지 시간은 무엇인가의 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끔살 수 있다며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아는 이도 없고 알 수도 없겠지만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나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항상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희망을 주기 위해 조연한 주치의의 위안의 말이 쉽게 변하지 않을 사회적 편견과 차별, 냉대의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더 큰 정신적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그 말이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삶에 대한 회의, 살아 있다는 자체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희망 없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 어쩌면 나의 의지가 약한 탓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기에 앞날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도 없이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련히 옛말이 떠올랐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고, 이승에서 굴러도 저승보다 낫다”는 말이...

아직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은 진실 아닌가.